

강진 청림농원 표고버섯,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로 인기



이마트와 판매계약 맺고 고품질 유기농 표고버섯 공급 백화고 등 13종류 선물세트 납품...젊은 주부층 '호응'

강진군 강진향교 근방에 위치한 청림농원(대표 안정균)은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전국 이마트에 추석 명절 버섯 선물 세트를 납품하기 위해 50여 명의 직원들이 어느 때보다 분주한 손놀림을 보이고 있다. 청림농원은 HACCP인증 및 현대화된 시설

을 갖추고 고품질의 표고버섯 등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표고버섯 선물 세트의 60%를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안 대표는 버섯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의 농산물 판매 행사장을 찾아 마케팅 홍보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이마트와 판매계약을 맺고 정성

가득한 고품질의 유기농 표고버섯을 꾸준히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 지금까지도 끈끈한 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마트 명절선물로 백화고 세트 2종류, 흑화고 세트 2종류, 동고세트 1종류, 혼합세트 7종류 등 총 13종류의 선물세트를 납품하고 있다.

또 표고버섯 외에 목이, 상황, 영지버섯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표고버섯 분말, 천연 조미료 등 가공식품 개발에 젊은 주부층으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안 대표는 "한송이 한송이 정성껏 기르고

수확하는 표고버섯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대자연의 선물이며, 추석 명절은 청정 강진에서 자란 표고버섯 세트로 마음을 전하시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식탁에 강진의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표고버섯 하늘연 선물 세트(흑화고 110g, 표고채 80g, 표고가루 100g*2ea)는 5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초록민을 저가 래지원센터(☎061-433-884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체감형 가상현실 치매케어 플랫폼 운영

AI 기반 개인별 맞춤형 훈련·운동 프로그램 지원,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 기대



진도군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감형 가상현실 치매케어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진도군치매안심센터는 조달청 혁신제품인 바이오헬스분야 '체감형 가상현실 치매케어 서비스 플랫폼' 시범사용기관 조달청 공모에 응모해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와 진도노인복지

관 2개소가 선정됐다. 군은 장비와 시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8월말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체감형 가상현실 치매케어 서비스 플랫폼' 운영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지원, 치매 걱정 없는 진도군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상체험 플랫폼 치매 예방실 운영을 통해 VR 치매예방 훈련을 비롯 인지·운동재활, 인바디, 혈압 검사 등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시니어 통합 웰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히 치매예방 플랫폼에서 받은 훈련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보호자, 의료진의 협업 지원,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으로 전국 어디서나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 등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인지 기능과 체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재활 콘텐츠를 이용, 인지 기능평가와 훈련·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해 치매 예방과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군은 조달청 혁신제품인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등 2개소 모두 시범 사용기관에 선정되어 총 6억원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예방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증진 디지털 치료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해양문화치유센터·청산 해양치유공원 이달부터 운영 시작

23일부터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시설인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이 준공되어 9월 23일부터 다양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327㎡ 규모에 시청각동, 후각동 등 4동을 건립, 인체의 오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청각동에서는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눈과 귀를 편안하게 하고, 후각동은 완도산 해조류가 첨가된 향수, 비누 등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향기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촉각동에서는 해양 생물을 활용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미각동에서는 해조류 셀러드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청산면 신흥리에 위치한 해양치유공원은 22

억 원을 투입, 6,517㎡의 규모에 스마트 치유관 등 건물 2동과 파빌리온 5동을 건립했다.

특히 청산면 신흥리 해변 해송 숲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스마트 치유관 내에 있는 푸드 치유관에서는 완도의 해초를 활용한 건강 셀러드를 시식하고, 해수 미스트 치유관에서는 해수 흡입으로 향염 및 비염 등 호흡기 질환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야외에 설치된 5개의 파빌리온에서는 족욕 치유, 소리 치유, 해조류 팩 치유, 허브 향기 치유, 허브 맥반석 치유 등 다양한 치유 체험이 가능하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읍면 실정 맞는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군 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역 특화·생활밀착형 사업 6개소 선정

해남군이 해남 읍면 실정에 맞는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은 14개 읍·면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군 자체 공모사업이다.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자유롭게 발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

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자체 심사를 거쳐 6개 읍면,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화산면 '연화호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북평면 '여기! 우리! 신바람 북평 (지역 공영 활성화 사업)' △마산면 '굿모닝

마산, 글로리 아침제(아침제 명소 조성 사업)' △화산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실천, 해남형 ESG 완성(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사업)' △산이면 '동네방네 행복 나르미 사업(무료빨래방 운영)' △화원면 '화원면민이 함께하는 ESG 재활용 세상(분리 배출 시설 설치)'이다.

군은 3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23년도 공모사업도 9월중 공고 예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내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발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